

화순군 “찾아오고 머물러 가는 관광도시 설계”

민선 8기 2년차 성과

만원 임대 주택 등 인구정책 전국 주목... 벤치마킹 잇따라 화순예술인촌 활성화 등 추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민선 8기 2년 차에 문화관광·백신·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56건(493억1700만원), 수상실적 33건(3억1300만원) 등 소정의 성과를 기록하며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 지속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찾아오고 머물러 가는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한 ‘만원 임대주택’

화순군의 2023년 주요성과 중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일으킨 분야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인구정책이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한 만원 임대주택 지

원사업과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 운영, 이어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급 등 파격적으로 선보인 인구정책은 전국적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며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정안전부)’ - 국무총리상, ‘2023년 전남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전남도)’ - 최우수상 수상, ‘2023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의 영예를 차지하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화순 군정의 우수성은 물론 군민들의 자부심까지 드높였다.

●소통공감 등 올해 주요성과

화순군은 민선 8기 2년 차인 2023년 한 해를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 행정 실천 △완전한 일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찾아오고 머물러 가는 관광도시 조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활력 있는 농촌건설 △미래 전략산업 바이오·

백신 분야 집중육성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년 희망 도시 화순 건설 △누구도 소외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내 1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6위, 정부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에서 나타나듯 월등한 행정 역량을 전국에 과시하며 국회와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년도 국·도비 예산 1286억원(126건)을 확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민들의 군정 발전에 대한 열망과 14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소중한 성과이다”라며 “과제들을 수행하면 화순의 미래를 30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도시 구축 역점

화순군은 500만 관광객이 머물러 가는 미래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 △권역별 관광 개발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제공 △화순예술인촌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능주면 동헌)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화순군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3 화순 고인돌 (봄·가을)꽃 축제’는 개최 첫해에 무려 80여만 명을 뛰어넘는 방문 인파로 대성공을 거두어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고, 도곡면 고인돌 모산마을은 UN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민선 8기 1호 공약사업인 화순천 꽃길 조성 사업은 음악분수 준공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개미산 전망대와 더불어 지역민의 쉼터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사업에 반영돼 국비 73억원을 확보한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승화 사업도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조기 착공이 기대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일자리창출 최우수상 전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경제 한마당은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행사다.

전남도는 일자리·경제·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을 표창했다.

일자리 창출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지표, 청년·신종년·취약계층 일자리 등 6개 분야 19개 항목 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나주시는 주력산업인 ‘에너지분야 맞춤형 일자리’, 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지원, 구인·구직 상담과 직업 교육, 취업·알선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는 올해 28개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일자리 관련 152개 사업을 추진했다.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인 926명, 구직 819명, 알선 1227명, 취업 532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내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지역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도심 내 점포를 신규(이전) 창업할 경우 초기 비용 1400만원을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영광군, 내년부터

영광군은 2024년 1월부터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광군은 민원업무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한 달간 집중홍보 기간을 거쳐 군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오후 12~1시)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8대 운영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총 7곳으로 확대 설치하였다.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시)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화순군, 정기연주회 성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1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제5회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은 배려 계층 아동들에게 클래식 음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학년별 아동과 악기 파트별 강사로 구성되어 바이올린, 첼로, 타악기 등 이론·실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30명 단원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허준’ 테마곡 등 7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연주회는 유튜브에서 ‘2023 화순군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검색하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행복 증진 및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다채롭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북암선 폐선부지 개선 사업 LED경관조명 설치 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읍 북암선 폐선부지 일부 구간 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읍 북암선(산책로)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LED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맨발 걷기 산책로로 주간에는 군민들의 이용이 잦은 편이나, 야간에는 보행자의 발길이 줄면서 조명도 없어 보행자의 안전 등 범죄 노출 등 산책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화순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산책로 이용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화순읍 대리에서 시작해 삼천리 화순고등학교 후미까지 1.0km 사업 구간 내 약 30m 간격으로 경관 보안등 31분을 설치한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제5회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화순군 제공

전남농기원 작물연구팀, 최우수 전문연구실상 수상

연구 실적·농업 기여도 호평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전문연구실 연구성과 평가에서 작물연구팀이 최우수 전문연구실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농업과학기술 포상계획에 따라 전국 159개 전문연구실 중 연구실적과 지역농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전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팀은 지난 3년간 비 신품종 개발 품종등록 1건, 영농

기술 10건, 종자 생산 5300톤, SCI논문 및 학술발표 9건, 교육 및 컨설팅 500여 건 등 비 신품종 육성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 성과를 거뒀다.

‘새청무 비’ 품종은 품종등록 5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전국 재배면적 93400ha(13%)로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전국 전업농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품종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2020년 이후 올해 54%를 점유해 전남 대표품종으로 정착하면서 전남 쌀 최고품질 10대 브랜드에 새청무 품종

브랜드쌀이 6개 선정됐다.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분야 대안인 영농형태양광 시설 하루 경지 비 재배기술을 정립해 작물과 전력의 병행생산으로 작물 생산보다 5배 농가 소득이 증대된 점을 제시했다.

영농형태양광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관개수 절감(23%)과 온난화에 따른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재배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간재 기자

담양군,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 앞장

담양군이 하반기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관내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타

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관내 12명의 위기청소년을 발굴,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총 6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담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육

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경찰서, 보건소, 담양군복지재단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통해 위기청소년 가정을 발굴해 지원했다.

그 밖에도 하반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내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결정, 청소년 관계기관과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담양-신재현 기자